

44

오물처리 종사자에게 발생한 기관지천식

성별	남	나이	46세	직종	환경미화원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허○○(남, 48세)는 1994.4.27.에 ○○시 공영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998.10.까지 쓰레기 수거 작업, 1998.11.부터 2000.5.31까지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을 하였는데, 2000.5.4. 출근하려던 중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으로 ○○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천식 진단을 받았다.

2 작업환경

허○○의 작업은 가정용 쓰레기와 오물을 청소하는 작업이었다. 1994.4.부터 1998.10.까지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, 분쇄하고 임시저장소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였다. 1998.11.부터는 쓰레기 차량을 운전하고, 차량 위에서 쓰레기를 받아주는 일을 하였다. 5~9월에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경 또는 3시경, 10~4월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경 작업을 마쳤다. 쓰레기 적재 및 분쇄, 하역시 먼지와 악취가 심하였으며, 쓰레기 지정봉투가 사용된 후 좀 덜하기는 하나, 분쇄 과정에서는 여전히 악취와 먼지가 심하였다고 하였다. 또, 새벽에 출근할 때는 찬바람에 노출되어 증상이 더 심하였다고 한다.

3 의학적 소견

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며, 입사 전까지는 병, 의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, 장기간 약물복용 경력도 없다. 결핵, 당뇨,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경력도 없다. 입사 후 감기로 약국이용이 잦았으며, 국민의료보험급여에는 1996.2.부터는 기관지염, 편도선염으로 진료를 자주 받았다.

1994년까지는 강원도에서 쌀,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에 종사했었다. 군대는 4년 간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. 1994.4.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과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을 하였다.

2000.5.4. 작업 중 기침, 가래 및 구역질로 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. 2000.5.14. 출근시 발작성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방문 후 천식 진단을 받고, 계속 치료하면서 일하다가 2000.5. 31. 퇴직하였으며, 요양신청일 까지도 치료 중이었다.

4 결 론

허○○의 기관지천식은

- ① 쓰레기 수거작업 중 분진과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될 수 있는데,
- ② 이러한 미생물들이 직업성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
- ③ 쓰레기 수거작업이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는데, 차가운 새벽기온과 악취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기존의 기관지천식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,
- ④ 입사 전에는 건강하였고, 알레르기성 질환의 과거력과 가족이 없으며, 입사 후 빈번한 호흡기감염 증상이 발생되어 진료 받은 적이 있으므로
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.